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7, July 31 (2023), pp.533-544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7.42

Reading *Wealth of Nations* as Liberal Education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읽기

Kapje Park[1], Bo-Kyung Kang[2]

박갑제, 강보경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Economics and Finance, Kyungnam University, S. Korea, park0318@kyungnam.ac.kr

[2]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 Korea, interstone@changwon.ac.kr

Corresponding author: Kapje Park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read the literature of Wealth of Nations(hereafter W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A non-major's reading of WN cannot be the same as a major's, so there mus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reading WN that meets the goals of a liberal arts education, given its vast scope and many economic topics. We believe that the search for an appropriate way to read the WN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reading topics. As you know, the classics raise fundamental and universal issues in human life, and the reading of the classics demands that the search for universal values in response to those issues be a painful process of exploratory thought that does not settle for partial answers. This study selects the core topics of WN to meet the goal of liberal arts education, which is to achieve intellectual excellence and moral excellence: the meaning of wealth, the method of analysis (understanding human nature), the market economy as a source of abundance, value production and distributive justice,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markets and morality, and identifies and explores the meaning of these topics in the WN.

Keywords: Market Economy, Division of Labor, Capital Accumulation, Self-love

요약: 이 논문은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읽기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공자의 국부론 읽기는 전공자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방대한 분량과 많은 경제적 주제가 펼쳐지고 있는 국부론 읽기에는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부론 읽기의 적절한 방법의 모색이 적절한 독서 주제의 선정과 관련된다고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은 인간의 삶에 등장하는 근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고전읽기는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 단편적인 해답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스런 탐색적 사유의 과정이 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국부론의 핵심주제를 지적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의 성취라는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즉, 부의 의미, 분석방식(인간 본성의 이해), 풍요의 원천으로서의 시장경제, 가치생산과 분배적 정의,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그리고 시장과 도덕 등 여섯 개로 선정하고 그러한 주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들을 국부론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핵심어: 시장경제, 노동분업, 자본축적, 자애심

Received: March 18, 2023; 1st Review Result: May 01, 2023; 2nd Review Result: May 29, 2023
Accepted: June 30, 2023

Copyright ⓒ 2023 KCTRS

1. 서론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기술사회로 진입하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사회에는 이른바 '자유인'의 양성과 비판능력을 양성하는 교육 즉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교양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전읽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서울대의 '독서세미나', 경희대 및 부산대 등 거의 주요 대학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1][2].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인문학 열풍이 대학에 미친 영향도 일부 존재하지만 교양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고전읽기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부분에도 기인하고 다.

주지하다시피 고전(classic)은 인간의 삶에 등장하는 근본적 보편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총체적 대응으로 '보편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전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숙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전은 발전적 사고(논리적 사고)에서 수렴적 사고(예술적 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고유형을 허용하고 구현하는 복합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매우 적합하다[3].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고전을 혼자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것은 각각의 고전의 주제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분야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평이하지 않고, 많은 고전들이 피상적으로 볼 때 교과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때로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 텍스트에서 곧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읽기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우선 이 책은 분량 자체부터가 독자들을 압도하며 동시에 다루고 있는 주제도 노동분업, 시장경제의 작동, 자본의 축적원리, 경제의 역사, 국가의 역할 등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설사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교양으로서의 국부론 읽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국부론은 제대로만 읽힐 경우에는 첫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성적 사고등 지적 탁월성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둘째, 분배적 정의와 같은 문제에 있어 올바른 도덕적 판단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셋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종합적 관념을 형성하는데 역할할 수 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7-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났던 첨예한 노사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기업과 기업이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부론 제대로 읽기는 더욱 더 중요하다 하겠다[4].

주지하다시피 교양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가 갖추어야 할 자유인의 교양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읽기는 세인들의 피상적인 경제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비판적 및 독창적 사고를 기르고 도덕적 탁월성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전공자의 경제학 교육이 아닌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읽기에 대한 하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고전읽기에 관한 연구가 전공영역에서의 국부론 읽기 측면이 강했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교양교육적 측면 즉, 지적·도덕적 탁월성 성취라는 측면에서 읽기의 한 방법을 제시한다[5].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와 국부론 읽기의 기본

Copyright ⓒ 2023 KCTRS

방향에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국부론 읽기 방법의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4장은 결론이다.

2. 교양교육과 국부론 고전읽기

2.1 교양교육의 개념과 목적

본 장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부론 읽기가 그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교양교육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20세기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허치슨과 아들러의 교양에 관한 관점은 교양교육의 고전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시민으로 하여금 교양교육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선거권은 성인에게 책임도 지우고 있는데 특히, 주권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교양교육을 필요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6].

그들에 따르면 교양교육은 그 개념 속에 자유를 함의하고 있다. 즉, 인간을 무지, 편견, 선입견, 단견 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가 그 개념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처음부터 자유인의 교육이었으며 자유를 위한 교육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교양교육의 고전적 의미와 더불어 디지털혁명의 정보기술사회의 급변하는 현실에서 독립적·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 지적 탁월성 및 도덕적 탁월성의 획득으로서의 교양교육의 목표과 그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표 1] 교양교육의 목표

[Table 1] Objective of Liberal Education

목표	항목	특성
지적 탁월성	이성과 합리성	이성;원칙과증거,논리, 합리성;적합성과 맥락성
	비판적 사고	민주체제의 덕목, 도덕적 탁월성과의 조화
	자율성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율 규율
	이해	지식이상의 의미, 원리와 적합성을 아는 것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주체적 사고와 판단
도덕적 탁월성	선과 선의 질서	선의 개념과 선의 질서 이해
	인격의 형성	도덕적 탁월성의 총합, 도덕적 문제
	자유인의 양성	편견, 선입견, 독단, 변덕, 무지, 탐욕에서의 해방
심미적 경험	자연	사람들에게 자유와 영감을 주고 삶을 강렬하게 하고 생생하게 함
	예술작품	
	예술적인 것, 심미적인 것	

2.2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읽기

본 절에서는 국부론이 전공교육에서 어떻게 접근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Copyright ⓒ 2023 KCTRS

교양교육으로서 국부론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부론은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s, 1723-1790))가 1776년에 저술한 경제학 저서로서 스미스에게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런 호칭을 안겨다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론은 당시 유럽 주요 나라들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시장경제와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가를 강조하고 있는 인문사회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의의가 있는 국부론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노동분업의 경제적 효과, 경쟁에 입각한 시장의 본질과 그 작동원리 및 임금, 지대 그리고 이윤으로의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고, 2편은 자본의 본질과 그 분류체계, 그리고 자본축적이 국가의 부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3편은 인류의 경제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4편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경제학설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5편은 국가재정론의 주제로서 국가의 수입의 원천과 지출, 그리고 공채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국부론은 그동안 경제학설사와 같은 대학의 전공교육의 교재로서 많이 읽혀져왔고 그 대략의 탐구 주제들은 다음의 표로서 정리될 수 있다[7].

[표 2] 전공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주제

[Table 2] Subjects of WN as Major's Education

학습 주제	내용
탐구 방법론	귀납적/연역적방법, '아담스미스의 문제'(이타적인간 vs 이기적 인간)
분업론	분업과 교환, 분업과 생산성
가치론	노동가치론의 의의, 척도와 가치형성으로서의 노동가치설
가격론	생산비설, 수요공급설, 시장경제의 장기균형
분배론	3계급론, 지대와 이윤의 원천, 임금론
자본론	자본의 분류체계,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생산적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경제정책론	자유방임주의, 중상주의 정책, 자연적 자유

하지만, 전공교육이 아닌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을 읽는 방법에서는 학술적 의의를 강조하는 전공교육의 정형화된 방법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 읽기는 우리가 사는 이 경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understanding)와 비판적 사고능력의 함양과 이를 통한 지적·도덕적 탁월성을 획득하기가 그 목적이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국부론의 구성을 그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재편할 수 있다.

[표 3] 국부론의 재구성

[Table 3] Reformulation of WN

주제	구분	위치
철학적/경제적 구조	국부의 본질	제1편, 1장,2장
	인간행위의 동기로서 이기심	제1편 3장,4장
	가격메카니즘의 역할	제1편,5-11장
경제성장의 원인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	제1편 1, 2장
	자본의 중요성	제2편, 1 – 5장.

Copyright ⓒ 2023 KCTRS

즉, 교양교육의 텍스트로서 국부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철학적/경제적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다시 이기심과 교환성향에 기초한 인간 행위와 가격메카니즘의 역할로 그 주제를 나눌 수 있고 후자는 노동분업과 자본형성의 중요성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3권, 4권, 5권은 사실상 1권과 2권의 핵심사상의 부록정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1권과 2권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8].

한편, 교양교육으로서의 올바른 가이드의 제시를 위해서 국부론의 집필 목적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부론은 상업에 대해 상당히 다루고 있으나 사업가나 상인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분석한 책으로, 정치인들을 각성시켜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스미스는 인간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의 계획은 인간을 실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인간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를 발견함으로써 인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부언하면, 스미스는 자기애와 이기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인간성이 사회 제도를 통해 적절히 인도될 때 사회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한 세기 이상 된 과거 성찰들을 토대로 연구했다[9].

스미스는 공공선에 관심이 있었고 공공의 이득을 증긴하기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멀리 미치는 결과까지도 식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 가져올 이득이나 해악을 예견할 수 있는 고도의 이성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 『국부론』의 저자와 같은 지식인들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면서 국부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 정치가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즉, 스미스는 법과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가의 과학'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부론의 목적은 우리가 교양교육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지적·도덕적 탁월성의 범주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국부론을 읽음으로써 국부론을 경제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전공교육으로서의 텍스트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도덕적 사고능력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소수의 논문만이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읽기의 가이드로 제출되어왔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기존 연구들은 비전공자의 교양교육 가이드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5]. 이상으로서 교양교육으로서 국부론 읽기의 핵심주제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표 4]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의 주제

[Table 4] Subjects of WN as Liberal Education

핵심주제	내용
국부의 의미	금은을 강조하는 중상주의 사고 vs 노동생산물의 향유
인간본성과 경제제도	이기심과 경제사회의 조화, 시장제도의 올바른 시각 회복
풍요의 원천으로서 시장제도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가져다 주는 효용
가치의 생산과 분배정의	기업이윤 획득의 정당성 판단, 가치생산에서 자본의 역할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자본축적의 경제성장에의 중요성, 자본과 고용의 문제
시장과 도덕	시장제도와 정치, 시장제도와 인간성

Copyright ⓒ 2023 KCTRS

3. 국부론의 핵심 주제

3.1 국부론 핵심주제와 교양교육 목표

국부론 읽기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지적 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의 획득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와 잘 부합한다. 국부론에는 이러한 탁월성을 성위할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로 가득한데 그 중에서 권고할 수 탐구주제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 국부론 주제와 교양교육 목표

[Table 5] Subjects of WN and Objectives of Liberal Education

교양교육목표	핵심 주제
지적 탁월성	국부의 본질, 시장경제 작동원리와 경제적 풍요의 관계, 자본축적의 경제성장 및 고용에의 함의
도덕적 탁월성	가치의 본질 그리고 가치 생산과 분배적 정의, 시장과 도덕, 교육과 인간성 회복, 인간본성과 경제제도

3.2 국부론의 핵심주제 고찰

3.2.1 국부의 의미 : 부와 생활수준

우리는 국부론 속에서 스미스가 국부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부론의 제1권 1장에서 분업을 논할 때 맨 처음 등장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10].

노동생산력을 최대로 개선·증진시키는 것은, 그리고 노동을 할 때 발휘되는 대부분의 기능·수련·판단은 분업의 결과인 것 같다.(p7)

이것은 국부는 바로 노동생산성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국부가 증진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부론은 국가의 부가 어떻게 증대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고전이다. 하지만,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국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문은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GDP는 어린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는다. GDP는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힘, 대중토론의 지성, 공무원들의 성실성을 포함하지 못한다. GDP는 용기, 지혜, 국가에 대한 헌신을 측정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 GDP는 생활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을 측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국부 즉 GDP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는 국부의 증진이 가지는 의미를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10].

Copyright ⓒ 2023 KCTRS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이 대부분의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몫으로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또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p102)

국민의 절대자수인 노동빈민의 생활상태가 가장 행복한가 가장 편안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가 진보하고 있을 때 ..(중략).. 사회가 계속 더욱 부유해지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생활상태는 사회가 정체상태하에 있을 때는 어렵고, 쇠퇴상태에 있을 때는 비참하다.(p106)

즉, 국부의 증가는 다수 대중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케네디의 의문에 대해 대중적인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Mankiw는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11].

GDP가 증가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교육용 책자와 더 많은 장난감을 줄 수 있다. GDP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깨끗한 물, 위생시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GDP는 국가들 사이에 성장 및 발전수준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3.2.2 국부론의 분석방법 : 인간 본성의 이해

국부의 원천과 시장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고전에서의 분석은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과 이 본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성향'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다. 그 성향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해, 비록 공공연하게 들어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줄 곧 따라다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두 번째,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이 갖는 분명한 성향은 (...)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교환하고, 교역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성향'이다[12].

스미스는 국가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억압해서는 안되고 인간의 자연스런 충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자기애(self-love)와 이기심같은 인간 본성이 시장제도를 통해 적절히 인도될 때 사회적으로 이득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자기애에 기초한 인간 행동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부론』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때문인.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p19).

Copyright ⓒ 2023 KCTRS

3.2.3 풍요의 원천, 분업에 기초한 시장경제

국부론의 가장 중요한 논지는 시장경제가 대다수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며, 이것을 스미스는 '보편적 풍요'라고 부른다. 시장경제는 자발적 교환경제와 다름 아니다. 그리고 교환은 자급자족대신 분업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핀공장 사례를 들어 노동분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스미스는 한 직업장에서의 노동분업뿐만 아니라 업종과 직업의 분리가 야기하는 재능의 개발이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의 공동 자원이 되고 이것의 국부의 한 원천임을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이 발휘하는 매우 상이한 재능의 차이를 형성시키는 것이 교 환성향인 것처럼,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환성향이다...(중략)...동물은 교환하고 교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이한 자질과 재능의 효과가 그들의 공동의 자원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종에 속한 동물들의 생존조건의 향상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p21). 이와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가장 상이한 재능들이 상호간에 유용하며, 각각의 재능에 의한 상이한 생산물들을 유무상통, 물물교환 및 상호교역 하려는 일반적인 천성에 의해 일종의 공동의 자원이 되며, 각자는 이 공동의 자원으로 타인의 재능이 생산해 낸 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사서 가질 수 있다(p21)

그리고 시장경제에서는 사익이라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작용한다. 그 결과 상품의 시장가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 특별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가격수준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시장경제의 작용으로부터 편익을 얻는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 이윤을 남겨주는 가격은 판매자가 때때로 자기의 상품을 팔게 되는 최저가격이다. ..(중략)..그러므로 자연가격은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끌려가는 중심가격이다...(중략)..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은 자연히 스스로 유효수요에 적응한다.(p75)

이것은 자유시장의 경제적 원리에 의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시장경제를 통해 노동생산물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의 사익에 기초한 경제행위는 저 유명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공공의 이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중략)..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p552)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적 조화를 이끌어 내는 진정한 지휘자, 즉 자유시장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상징한다. 상호이해의 양립에 입각한 자유로운 교환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Copyright ⓒ 2023 KCTRS

3.2.4 가치의 생산과 분배적 정의

국부론의 여러 부분 중 국부론 읽기가 비전공자에게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는 대목에서이다. 국부론에서 전개하는 상품의 가치들에 대해서 다소 모호한 부분은 현대 경제학자들간에 논쟁적 부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진지한 고전읽기를 통해 스미스가 말하고자 하는 교환을 규제하는 원리인 가치론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적 성과의 분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스미스는 직접적으로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부론의 곳곳에는 사회경제적 정의에 대한 스미스의 통찰을 읽어낼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산의 몫으로 그런대로 잘먹고, 잘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또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p102)

그리고 가치생산과 그에 따른 분배와 관련하여 자본(기업)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애는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13]. 국부론에서도 스미스는 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본이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축적되자 마자 그들 중 약간의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켜 그들이 만든 것의 판매에 의해 이득을 보려는 것은 당연하다(p61). 문명국에서는 상품의 교환가치가 오로지 노동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상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대와 이윤이 대부분 상품들의 교환가치에 크게 기여한다. 그 나라의 연간 노동생산물이 구매·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은 항상 그 연간 생산물을 재배·제조하여 시장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된 노동의 양보다 훨씬 크다.(p69)

그리고 자본에서 주어지는 보통이윤이 반영된 가격이 그 상품이 제대로 된 가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상품은 정확히 그것의 가치대로, 즉 그것을 시장으로 내오는 사람이 실제로 들인 비용대로 판매되는 것이다. .... 만약 그가 자기 주위에서 얻고 있는 보통의 이윤을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자기 주위에서 얻고 있는 보통의 이윤을 허용해 주지 않는 가격으로 그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 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자기의 자본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더라면 그는 보통의 이윤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상품이 그에게 이윤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그가 실제로 그 상품에 들인 비용을 그에게 상환하지 않는 셈이 된다.(p72)

3.2.5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현대 경제학에서 자본축적은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평가받는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재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물의 본성상, 재고의 축적은 분업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재고가 미리 더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분업은 더욱 세분화된다. ..(중략)..각 노동자의 조작이 점점 더 단순화 됨에 따라 그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Copyright ⓒ 2023 KCTRS

종류의 새로운 기계가 발명된다. 분업이 진전됨에 따라..(중략).. 더 많은 양의 원료, 도구가 미리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p334)

즉, 스미스는 '노동생산력의 커다란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재고가 축적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재고의 축적은 자연히 이러한 개선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나라서나 노동량은 노동을 고용하는 재고의 증가와 함께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고 증가의 결과 동일한 노동량은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스미스는 자본을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분류한 다음 고정자본의 축적이 가져오은 국부증진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정자본의 목적은 노동생산력을 증가시켜 같은 수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훨씬 많은 작업량을 수행하도록 한다....(중략).. 제조업에서도 기계에 의해 보조되는 같은 수의 노동자는 ..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낸다. 고정자본에 적절히 지출되는 비용은 언제나 많은 이윤을 낳으며, 이러한 개량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만큼 연간생산물을 증가시킨다.(p350)

3.2.6 시장과 도덕

스미스는 시장을 통한 국부의 증진은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더 넓은 도덕적 비전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스미스가 상업사회를 중요시한 것은 물질적 부 때문만이 아니라, 상업활동을 벌이는 인간이 갖추게 될 새로운 도덕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14]. 그는 시장의 출현으로 사회가 상업사회로 진화하고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상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자제심을 키워서 좀 더 유연해지며, 비사회적인 성격을 누르고 타인의 요구에 맞추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시장은 일종의 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상업과 제조업은 점차 질서와 선치를 가져왔고, 그와 더불어 예전에는 이웃 국가들과 거의 끊임없는 교전 상태 속에서 상위 계급에 노예처럼 종속되어 살았던 국민에게 개인의 자유와 안보를 가져다줬다.(p499)

또한 국부론에서는 시장경제의 발달이 인간의 도덕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업을 더 잘 관라하기 위해 길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노동자에 대해 실행되는 진실하고 유효한 제재는 길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 의한 것이다. 노동자가 감히 가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배타적인 동업조합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제재력을 약화시킨다.(p169)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스미스의 논점을 확대해 시장경제체제는 인종차별문제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15]. 즉 소비자들은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의 물건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고 주장한다. 상품의 교환과 거래를 통해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시장경제는 우리 사회의

Copyright ⓒ 2023 KCTRS

타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이상으로 이 논문은 교양교육으로서의 국부론읽기의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전공자의 국부론 읽기는 전공자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방대한 분량과 많은 경제적 주제가 펼쳐지고 있는 국부론 읽기는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교양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무엇보다도 지적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에서는 달리 읽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부론의 핵심주제를 부의 의미, 분석방식(인간 본성의 이해), 풍요의 원천으로서의 시장경제, 가치생산과 분배적 정의,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그리고 시장과 도덕 등 여섯 개로 선정하였고 그러한 주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들을 국부론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론이 교양교육 텍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3~2024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Reference

[1] H. J. Yi, Reading Classic and Liberal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011), No.26, pp.517-548.
UCI: G704-001476.2011..26.018

[2] I. M. Jung, Reading the Classics and the General Education, Journal of Liberal Education, (2007), Vol.39, No.39, pp.329-350.
DOI: http://dx.doi.org/10.22969/kzfd.2007.39.39.329

[3] D. Son, Education Theory of University's Liberal Education, Philosophy and Reality-Sa, (2020)

[4] K. H. Hong, A Historical Survey on Theories of the Justification of Profit and Interest, Economic Journal, (2018), Vol.57, No.1, pp.3-38.
Available from: https://hdl.handle.net/10371/145217

[5] M. S. Su,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and Liberal Arts Education, Journa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2021), Vol. 2, No.2, pp.53-84.
DOI: https://doi.org/10.37998/LE.2021.2.2.2

[6] D. Shin, Libeal Education, Kyuri, (2016)

[7] B. Kim, History of Economic Thought, Daemung-Sa, (1989)

[8] A. Murphy, The Genesis of Macro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9] J. Z. Muller, The Mind and The Market, Anchor, (2003)

[10] S. Adam(translated by S. Kim), Wealth of Nations, BeeBong-Sa, (2012)

Copyright ⓒ 2023 KCTRS

[11] G. Mankiw, Macroeconomics, Worth publishers, (2010)

[12] T. Buchholz,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Plume, (2021)

[13] S. Jo, A Study on the Adam Smith, BakYoung, (1990)

[14] D. Ramusen, The Infidel and the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Pres, (2017)

[15] M. Sandel, What is the Justice, Wiseberry, (2010)

Copyright ⓒ 2023 KCTRS